

이덕일의 '역사의 창'



개혁은 수단과 목적이 일치해야

조선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치 집단은 조광조가 주도하던 사림파였다. 사림파가 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사회는 지치(至治)사회였다. 지극한 정치, 지극한 다스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치(至治)는 요·순(堯舜) 같은 성왕(聖王)들이 펼쳤던 정치를 뜻한다.

성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인(聖人)이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학문이 대학(大學)이었다. 유학의 경전 중의 하나인 '대학'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모두 외웠던 것인데, 큰 학문의 길(大學之道 : 대학지도)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한다. 성인이 되는 큰 학문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明明德 : 명명덕),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데 있고(親民 : 친민), 지극한 착함에 머무는 데 있다(至善 : 지선은 것이 다).

이렇게 말하면 말장난 같지만 '밝은 덕이 밝게 빛나는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했다. 공자가 임금이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보다 덕이 있는 인물에게 물려주는 선양(禪讓)을 크게 높인 것도 '밝은 덕이 밝게 빛나는 사회'

의 모습을 말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지치는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야 했다. 백성들의 경제적 삶이 풍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말로 양극화가 없어야 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고대의 삼대(三代), 즉 하·은·주(夏殷周)를 이상 사회로 높인 것은 그 당시의 토지 제도가 정전제(井田制)였기 때문이다.

9백 무(畝)의 토지를 우물 정(井) 자 형태로 나누면 아홉 구획의 토지가 나오는데, 여덟 가구가 1백 무씩 경작하고 가운데 1백 무는 공동으로 경작해서 행정 비용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정전제였다. 모든 백성들이 같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제도가 정전제였다.

사림파는 이 정전제를 지향했지만 이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사림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사림파는 한전법(限田法) 시행을 주장했다. 일종의 토지 소유 상한제로서 한 사람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종 때 사림파는 균전제(均田制) 실시도 주장했는데, 균전제란 고구려의 형제 민족이었던 북방 선비(鮮卑)족들이 세운 북위(北魏)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서 국가에서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세금과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였다. 수·당(隋唐) 등 선비족이 지배층을 형성했던 나라들에서 모두 균전제를 실시했다.

중종 때 훈구 세력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사림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대토지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림파가 주장하는 지치(至治)는 결국 훈구 세력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토지를 백성들에게 분배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사림과 훈구의 대결은 토지를 둘러싼 사생결단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사림파는 자신들의 도덕성 실현에도 훈구 세력에 대한 비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이상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했다. 그렇기에 조광조 등이 훈구 세력의 역공세로 사형당했어도 많은 사대

부는 물론 백성들까지도 사림파의 개혁 정치를 지지했다. 그래서 비록 조광조 등의 사림파는 현실 정치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에서 승리하고, 그 후계자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예들이 조광조 등의 개혁 정신을 실제로 계승했는지 여부는 다시 논의하더라도 사림파는 수단과 목적을 동일시했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김기식 사태를 비롯해서 몇 차례 드러났던 현 정권의 인사 실패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높은 지지도에 기대서 묻어갈 일이 아니다. 수신제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거듭 나타나고, 이들을 공격한 논리로 계속 옹호할 경우 목적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의 당위성을 의심 보와 백과 단과 목적의 불일치가 목적 자체를 좌초시킨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료칼럼

직장인의 적 대장암



김경종 조선대병원 외과(암센터장)교수

40대 중반의 회사원 C씨는 골초라 불릴 정도로 애연가인데다 음주도 즐겨했다. 사람 만나길 좋아해서 희식이라면 빠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술 마신 다음날 설사가 잦고, 속취도 오려갔지만 과음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년 전부터는 대변을 보고 나면 간간히 출혈이 있었지만 이도 '치질이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수개월 전부터 대변 출혈이 잦아지고 소화 불량에 시달리던 그는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13만

6000여 명에서 2016년 15만6000여 명으로 5년 새 15%나 증가했다.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지만 30~40대도 10%라는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했다. 대장암은 발병률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처음으로 대장암 사망자 수(10만 명당 16.5명)가 위암 사망자 수(16.2명)를 앞질렀다.

흔히 암은 크고 위중한 병이라 통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장암의 원인은 약 10~30%를 차지하는 유전성 요인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미리 원인을 피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높은 열량의 섭취, 동물성 지방 섭취, 섬유소 섭취 부족, 비만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붉은색을 띤 육류가 대장암 발생률을 높인다. 또한 소시지, 햄, 베이컨, 핫도그, 육포 등의 가공육을 하루에 50g씩 먹을 경우 대장암 발생률은 18%씩 오른다. 음주 역시 관련이 큰데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도가 5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흡연 또한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키며, 2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장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지만 조기 발견하면 100% 가까이 완치된다. 증상은 암이 생긴 위치와 병기에 따라 다르다. 우측 대장의 경우 증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고 배에 흑이 만져진다든지 체중 감소, 빈혈 증상, 우하복부 통증 등이 나타난다. 반면 좌측 대장은 비교적 일찍 장이 좁아지고 변이 고형인 탓에 배에 가스가 차고 아프기도 하며 변이 가늘거나 잘 안 나오고 항문으로 피가 보인다. 항문 바로 안쪽인 직장에 암이 생기면 변이 자주 마렵지만 잘 안 나오거나 가늘게 나오고 붉은 피가 나오는 등 비교적 일찍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 대장암의 경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을 느낄 수 없지만, 진행성 대장암인 경우 중앙의 크기가 커지면서 쉽게 출혈을 일으키거나 장의 막힘으로 배변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대장암 치료는 수술이 기본이다.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후의 보조적인 치료로 그 역할이 크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경우는 없다. 조기 암의 경우는 수술만으로도 95% 이상 완치율을 보이며 2기·3기 암의 경우는 수술 후 항암제 치료를 보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직장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후에 시행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가 된 4기 암의 경우에도 수술로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먼저 고려하고, 절제가 가능한 4기 암의 경우 25~35%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대장암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 활동이다. 남자의 경우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의 가능성을 20%까지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평소 식습관을 개선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류·채소를 충분히 먹어야 한다. 하루 2ℓ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비만해지지 않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이다.

기고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 폭력 근절에 나서자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몇 해 전에 상영했던 드라마 '기억'에서 주인공의 아들이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교실 내 절도 사건마저 누명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는 상황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및 일반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지금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제각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학생들을 몇 안 되는 교사들이 관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 언어 폭력 34.1%, 2위 집단 따돌림 16.6%, 3위 소도끼 12.3%, 4위 신체 폭행 11.7%, 5위 사이버 괴롭힘 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폭력에 비해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은 적잖은 충격이다. 이런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평소 관심이 중요하다. 교사가 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그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고의성 여부의 판단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교 폭력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심각한 것이다.

둘째, 지속성 여부이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인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힘의 균형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덩치가 큰 학생이 덩치가 작은 학생을, 다수의 학생이 소수 1~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힘의 불균형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 여부를 파악하여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여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한다.

최근 가정의 해체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과 한 부모 가정의 점증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학교 폭력의 초기 대응부터 대처까지 학교와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미숙한 우리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하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훈육하되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도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장래의 꿈과 목표 등에 대해 먼저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부모 또한 평소에도 진심으로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

지난 2009년 광주시도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학교 폭력 대응을 위한 예방책으로 '광주시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및 학교폭력 예방 감시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때문에 각 가정의 부모와 학교·교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청소년과 소통하려는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및 학생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社說

민주 경선 현역 시장·군수 대거 탈락의 의미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시장·군수 후보 경선에서 현역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나선 기초자치단체장 여덟 명 가운데 네 명만 살아남은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그제 발표한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 여덟 명 가운데 주철현 여주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김성장흥 군수, 강진원 강진 군수 등 네 명이 탈락하는 등 이변이 일어났다.

여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입당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권세도(50.19%) 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 주철현(38.92%) 현 시장과 김우화(19.31%) 여주시 의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장 경선에서는 허석(60.27%) 후보가 조충훈(39.73%) 현 시장을 20.54%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민선 3기 시장 재임 중 뇌물 수수 혐의로 복역한 조 시장의 전력이 당의 자격 검증은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시민과 당원들이 참여한 경선에선 결렬되어 된 것으로 보인다.

장흥 군수 경선의 경우 박병동(53.

63%) 전 여수경찰서장이 김성(46.13%) 현 군수를 제쳤고, 강진 군수 후보에는 강진원(46.35%) 현 군수를 7%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이승욱(53.35%) 전 여수 부시장이 확정됐다. 김 군수와 강 군수가 탈락 전력 등으로 10% 감점을 받은 반면 박 전 시장과 이 전 부시장은 신인 가점 10%를 받으면서 역전 극이 펼쳐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준성(70.92%) 영광 군수와 강인규(62.01%) 나주시장, 이동진(52.04%) 진도 군수, 최형식(43.18%) 담양 군수 등은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공천권을 손에 쥐었다.

현역 시장·군수들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한 데는 정치 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신인 가산점(10%)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는 지자체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단체장 세대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차별화된 지역 개발 전략을 펼쳐 온 현직 단체장들이 높은 득표율로 재선의 길을 연 반면 부패 전과나 철새 행적을 보인 경우는 의문을 받은 것도 특징이다. 단체장을 꾸무는 정치인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6·13 지방 선거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다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지지를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많은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데만 열중한 탓에, 지역 정책이나 의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엇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동네 공약 지도'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회와 언론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됐던 키워드를 집대성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공약 지도'에 따르면 이번 광주·전남 지방 선거의 최대 화두는 '교육과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최대 이슈를 담은 키워드는 '무등산' '청소년' '시내버스' '중구'

'일자리' '장애인' '교육' '자동차' '국비' '혁신도시' 등이었다. 전남은 '전남대' '경찰' '교육' '조류독감' '청소' '안전' '소방서' '혁신도시'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주민들은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 공통적인 관심을 보였다. '혁신도시'의 연관어로 광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본사' '에너지밸리' '채용' 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전남은 '빛가람 혁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참 일꾼을 뽑는 데 있다. 각 후보들은 교육과 일자리가 지역의 최대 화두인 점을 명심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걸맞은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한식·단오·추석이다. 농경 사회에서 1년의 시작인 설과, 마무리를 상징하는 추석의 중간에 있는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 한식과 단오에 대한 인식과 의미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간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식(寒食)의 유래가 된 개자추는 19년간 타국을 전전했던 진문공을 수행하며, 할고봉군(劔腹奉君)의 일화를 만든 인물이다.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허기

개자추와 굴원

지 군주를 먹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제후가 된 진문공에게 관직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문공이 군주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인데, 몇몇 인사들은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다"며 함께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이 사실을 안 진문공이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질렀는데, 모자는 결국 다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는 결국 다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 한식날 정해 더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르문 굴원은 초나라 쇠퇴기에 간신들이 모함하자 자신의 지조와 결백, 그리고 떳떳함을 보이기 위해 먹리수(汨羅水)에 돌을 안고 들어갔다. 이런 일화가 우리나라에 전래돼 단오(端午)의 기원이 됐다. 굴원은 죽기 전 '어부사(漁父辭)'라는 시를 지었는데, 여기서 "은 세상이 모두 흐려 있는데 나만 홀로 맑고, 못사람들은 모두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어 쫓겨났소"라고 했다.

지금에 와서 새삼 개자추와 굴원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

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권력 쟁취를 향한 권모술수, 승자의 집권과 독식, 농공행상의 피해, 집권층의 비리와 부패 등 당시 정쟁 전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지방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후보자와 그를 돕고 있는 인사들은 이제 사리사욕이나 입신양명이 아닌,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d@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